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김 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요 기업·유관기관과 손을 맞잡다

보령·홍성·서천지역 김 산업 협회·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6/02/27 [19:23:00]

대전신문



▲ 2026 김 산업단지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간담회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홍성·서천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 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추진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 2026 김 산업단지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간담회 장면

그리고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 고용 문제 등 애로사항과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약 34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지청, 김 산업 고용난 해소 나선다

충남 김 수출 3400억 시대,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김재수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6-03-02 10:12



보령지청은 지난 27일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충남 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령지청은 2월 27일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홍성·서천 지역의 핵심 산업인 김 산업이 직면한 고용노동 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운영, 노동기준 및 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올해 주요 추진업무와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 고용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 약 34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 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김 산업은 국내 김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계절적 특성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김 산업 고용환경 개선에 힘 모은다'...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기업·기관과 간담회

송병배 | 승인 2026.03.02 11:27

보령·홍성·서천 지역 김 산업 고용 애로 해소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7일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보령, 홍성, 서천 지역을 대표하는 김 산업의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 및 감독,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고용노동 정책 전반에 관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업무와 변경되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김 산업에서 내국인 채용 확대와 외국인 고용 문제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점석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 산업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 약 3400억 원의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 우리 지역 김 산업의 기여가 컸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손잡고 김 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 등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용 환경 개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병배 song4243@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김 산업 애로사항 해결 '앞장'

☞ 조흥기 기자 | ⌚ 승인 2026.02.27 17:17

보령·홍성·서천지역 김 산업 협회·주요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보령·홍성·서천지역 김 산업 협회·주요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단체사진

[충청뉴스 조흥기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홍성·서천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추진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고용 문제 등 애로사항과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약34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흥기 기자



종합건강검진센터

건강상담전화 070-4257-6522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김 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요기업 · 유관기...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2.27 20:54



- 보령 · 홍성 · 서천지역 김 산업 협회 · 주요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 · 홍성 · 서천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추진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고용 문제 등 애로사항과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총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약34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2-27 20:54

김서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dsn.green1238@gmail.com

Copyright @2022 대천광장신문. All rights reserved.

대천광장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김 산업 분야 애로사항 청취

충남=박한복 기자 | 승인 2026.03.01 15:36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홍성·서천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추진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고용 문제 등 애로사항과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약34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박한복 기자 phb1226@hanmail.net

보령시뉴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김 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요기업 · 유관기...

김서안 기자



- 보령 · 홍성 · 서천지역 김 산업 협회 · 주요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7일 관내 김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령 · 홍성 · 서천지역 대표 산업인 김 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추진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김 산업의 내국인 채용 및 외국인고용 문제 등 애로사항과 유관기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충남 김’이 2025년에 2억 3100만 달러(약34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데 관내 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김 산업의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2-27 20:55

Copyright @2021 녹색뉴스. All rights reserved.

녹색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서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mail dsn.green1238@gmail.com



독자의견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글 보령소방서, 2026년 제1차 신규 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 지역 안전 ...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 2026년 제1차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더보기



새글 보령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종합반' 교육생 모집

보령시는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종합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종합반... 더보기